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의 파벌투쟁

- 호남성(湖南省) 도현(道縣)을 사례로 -

구소영*

<차 례>

1. 머리말
2. 도현(道縣)의 문혁 파벌의 기원
3. 현 당위원회(縣 黨委員會)에 대한 '조반'에서 양대 파벌 경쟁으로
4. 도현(道縣)의 '전면 내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문혁대혁명 시기 중국 농촌의 파벌주의 문제에 관해 湖南省 道縣을 사례로 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혁 시기 농촌의 파벌투쟁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도현의 사례는 문혁 시기 중국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이 격렬한 파벌투쟁이 있었고, 그것이 무력항쟁으로 격상되었을 때 대량의 민간인 학살 사건까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문혁은 기본적으로 도시 현상이었다"고 하는 농촌문혁에 대한 평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도현의 파벌 대립에는 문혁 이전 도현 사회 내부에 누적되어 있

* 경북대학교 사학과.

던 갈등과 적대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대규모 '武鬪'로 확대·발전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軍 '支左'정책, '좌파 무장'과 같은 중앙의 정책에 있었다. 1967년 '1월 탈권' 이후 중앙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의 문혁 개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 자체의 모호성과 중국 지방군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도현의 대중조직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1967년 여름, 대중조직 간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취한 '좌파 무장' 정책은 파벌 경쟁을 무장 항쟁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동안 문혁 연구에서 군대의 개입은 문혁의 무정부상태와 같은 대혼란 국면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것은 문혁의 전체 맥락에서는 긍정할 수 있는 평가이지만, 도현의 사례는 군대의 도현 문혁 개입이 오히려 파벌경쟁을 격화시키고 파벌의 무장 강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폭력의 확대와 민간인 학살의 비극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문화대혁명, 중국 농촌, 호남성 도현, 파벌주의, 도현대학살, 인민무장부

1. 머리말

본고는 기존의 문화대혁명(이후 문혁으로 약칭)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중국 농촌 사회에서 전개된 문화대혁명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혁은 매우 복잡한 역사적 경험으로, 극도로 정치화된 중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여러 변동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공산당 중앙의 최고엘리트층의 권력투쟁에서부터 정부 기관, 군대 등 국가기구의 각 부문,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학교와 학생 등 중국의 거의 모든 부문과 장소에서 진행된 여러 사건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각각의 접근방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문혁은 포괄적이고 복잡한 역사 현상이다. 이런 다면적이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중국 문혁은 그것의 발생에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되어 왔다.

기존의 문혁 연구는 대부분 도시와 도시현상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물론 초기 문혁 연구에서 농촌의 문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 주요 신문과 라디오 방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국 농촌의 문혁을 살펴본 Baum은 "문화대혁명은 기본적으로 도시 현상"으로,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紅衛兵의 선동, '奪權', 내부 파벌투쟁과 같은 큰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2] Baum의 위 견해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큰 도전 없이 유지되어 왔다.[3]

그러나 시간의 경과는 문혁에 대한 새로운 분석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식 문헌의 정리·출판, 각종 내부 자료 및 대량의 구술기록, 그리고 연구 환경의 변화 등으로 농촌에서의 문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혁 시기 많은 농촌 지역에서도 파벌 간 대립과 투쟁이 도시만큼이나 격렬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의 그것을 훨씬 초월한 '대규모 학살' 사건까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4]

---

1) 안치영, 「문화대혁명과 그 연구 동향 및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3-2, 1997, p. 188.

2) R. Baum,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Countryside: Anatomy of a Limited Rebellion", Thomas W. Robinson (ed),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3) 磯部 靖, 「廣東における文化大革命と中央·地方關係」, 『長岐外大論叢』 4, 2002, pp. 1-20.

4) J. Unger, "Cultural Revolution Conflict in the Villages", *The China*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도시 중심의 문혁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서 출발하여, 문혁 시기 농촌문혁의 실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문혁이 비록 중앙 정책에 의해 일괄적으로 전개된 정치운동이지만, 방대한 인구와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중국인만큼 그 실천 과정 역시 다양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호남성 도현을 분석의 場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그동안 농촌을 포함해서 중국 기층사회의 문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데는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현은 자료적 한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지역이다.[5] 둘째, 문혁 시기 도현의 파벌투쟁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도현 농촌에서 4,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간인 학살은 도현의 문혁 파벌투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국의 다른 농촌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대량 학살

Quarterly, vol. 153, 1998; A G. Walder and Y Su,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Countryside: Scope, Timing and Human Impact", *The China Quarterly*, vol. 173, 2003; 宋永毅, 『文革大屠殺』, 開放雜誌社, 2002; Y Su, *Collective Killings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谷川眞一, 『中國文化大革命のダイナミクス』, 御茶の水書房, 2011; 高默波, 『高家村: 共和國農村生活素描』, 中文大學出版社, 2013 등.

5) 호남성 도현의 문혁 경험을 살펴본 연구로는 譚合成의 저서가 유일하다.(譚合成, 『血的神話: 公元1967年湖南道縣文革大屠殺紀實』(第2版), 天行健出版社, 2012) 이것은 그가 2001년 章成이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하여 발표한 '도현대학살' 관련 글의 全文이라고 할 수 있다.(章成, 「湖南道縣農村大屠殺」, 『開放雜誌』 7,8,9,12期, 宋永毅, 앞의 책) 업무와 관련하여 '도현대학살'에 관한 대량의 기밀 자료를 접촉할 기회를 가진 저자는 이후 현지 조사와 유가족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자료를 보충하여 본 저서를 출간했다. 『血的神話』는 1967년 중반 도현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대량의 살해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도현의 문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도현의 문혁 파벌주의의 원인과 그것이 대량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농촌의 대량 학살사건은 문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등 도현의 사례는 농촌에서의 문혁 파벌투쟁 및 그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호남성 도현의 문혁 전개과정과 파벌투쟁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도현 문혁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도현(道縣)의 문혁 파벌의 기원

1) "四淸"運動과 농촌문혁

문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 도현에서는 중국의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교육"운동(이후 '社教'운동으로 약칭)이 당-정부 조직의 지휘 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社教'운동은 처음에 도시에서는 횡령·절도, 투기 매점, 낭비, 분산주의, 관료주의를 비판·청산하는 "五反"운동으로, 농촌에서는 장부, 창고, 재물, 노동점수 등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四淸(小四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65년 이후로는 "淸政治, 淸經濟, 淸思想, 淸組織"의 소위 "大四淸"으로 통일적으로 진행되었고, 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층간부와 당원의 부정부패 문제를 청산하는 整風運動으로 실천되었다.

1965년 8월 도현과 그 관할 촌에도 '社教' 운동 총단과 분단이 각각 설치되었다.[6] 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縣에서 5천 여 명의 간부를 차출하여 '社教'운동 工作隊를 조직했다. 공작대는 주로 도현의 각 區와 公社의 간부, 현 내 기업·사업 단위의 간부, 生産大隊 黨 지부 書記와 회계사, 또 일부 知靑과 청년들로 구성되었

6) 湖南省道縣縣誌編纂委員會 編, 『道縣誌』, 中國社會出版社, 1994, p. 153.

다.[7] 이들은 각 區와 촌에 파견되어 현지 간부의 협조 하에 '社教' 운동 임무를 수행했다. 다른 정치운동과 같이, "四淸" 운동 역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계급투쟁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임무는 관할 지역 내 거주민들의 기본 정황을 파악하여 계급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대개 한 집안의 3대를 조사하여 계급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五類分子 및 그 자녀'로 분류하고, 그 외 "내부에 숨은 우환", "계급 입장이 공고하지 않은 사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 등으로 구분하였다.[8]

다음에는 이것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계급투쟁"의 논리로 다루어야 했다. 이 작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지도부와 공작대원의 자의적 해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운동은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修辭로 나열된 각종 '죄목'으로 군중공개심판대에 설 것이었다. 일부 간부들은 당적 제적, 면직, 감봉, 벌금 등 각종 처분을 받고 숙청될 것이고, 그들의 자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새로운 사람들('적극분자')로 충당될 것이었다. 이렇게 '社教' 운동은 이전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정치운동의 하나로 마무리될 것이었다.

---

7) 謝承年, 「我親歷的"四淸"運動那些事」, 『文史天地』 6, 2012, p. 8.

8) 그 분류 기준은 애매모호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집안의 조부가 淸代 군인 출신으로 太平天國軍과 싸운 전적이 있으면 이 집안의 가장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 1960년 대약진운동 기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면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한 마을에서 '지주'로 분류된 집안의 아들과 서로 친한 호칭을 사용한다면 "계급 입장이 공고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 노동개조캠프를 다녀온 사람, 홍콩·마카오·대만에 친척이 있는 사람, 정치·사상적 문제로 해직된 사람, 여러 차례 정치운동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그 성분이 여전히 보류중인 사람, 미신 행위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 등은 "내부에 숨은 우환"으로 분류되었다. 謝承年, 위의 논문, p. 9.

그런데 1966년 중반, 도시에서 문혁 운동이 시작되었다. 당 중앙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이나 농촌과 같은 생산 현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社敎'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의 문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과 도시의 문혁 열기는 지방과 농촌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자본주의 길을 가는 當權派를 타도한다"는 反관료주의를 표방한 문혁은 "四不淸" 간부에 대한 비판과 숙청의 '社敎' 운동과 경계가 모호했다. 그것은 운동의 지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社敎'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1966년 6월, 도현 당국은 문혁 운동을 지휘하기 위해 당 고위 간부로 구성된 '文化革命領導小組'를 성립했다. 문혁 공작조도 조직하여 縣 직속 각 기관과 학교에 보냈다. 7-8월 여름방학기간에는 縣 전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道縣一中에 소집되어 "三家村"과 "자산계급 반동 학술권위"를 적발하고 비판하는 운동에 동원되었다. 그 결과, 당 직속 기관 및 학교에서 300여 명의 "階級敵人"과 "牛鬼蛇神"이 적발되었고 비판투쟁의 박해를 당했다. 이것은 곧 현 전체로 확대되었다.[9]

이와 같이 '社敎' 운동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도부는 문혁 지도그룹으로 전환되었고, '社敎'운동과 문혁의 기본 임무가 동일한 듯,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는 간부와 교사, 대중에 대한 조사와 숙청은 계속되었다. 『道縣誌』 기록에 따르면, 1966년 8월까지 '社敎' 운동으로 '문제가 있다'고 적발된 당원이 등록 당원 4596명 중 414명이었고, 이들은 당적 제적, 당 내 관찰, 직무 해제, 경고 등 다양한 처분을 받았다. 또 '지주', '부농', '자본가' 등 소위 "누락된 부르주아 계급"으로 수십 명의 대중이 '색출'되었다.[10]

---

9) 『道縣誌』, pp. 153-154.
10) 『道縣誌』, p. 153.

비록 이때 "四淸"과 초기 문혁 운동을 통해 비판투쟁 및 각종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다만, 문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중앙의 문혁 정책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이때 박해를 받은 간부, 교사, 대중은 문혁의 자유로운 조반 조직의 활성화에 힘입어 다양한 대중조직을 만들고 그들에게 내려진 처분의 부당함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요컨대, '四淸'과 같은 문혁 이전 정치운동이나 초기 문혁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조성된 갈등과 대립은 도현의 파벌투쟁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 '社敎'운동 기간 도현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노선의 계급투쟁"은 이러했다.

한 생산대대에서 돼지농장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한 농민이 어느 날 집에서 키우고 있던 암탉이 사라져서 찾고 있었다. 그런 중에 돼지농장의 암퇘지 한 마리가 갓 낳은 새끼돼지 몇 마리를 압사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사육사는 "階級敵人"이 되어 군중공개심판대에 서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 닭을 집단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에 우선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았다. 개인적으로 키운 돼지를 국가에 파는 것은 '사회주의'고 도살해서 먹는 것은 '자본주의'였다. 경제 사정이 좀 더 여유 있어 보여도, 예를 들어 새로 지붕을 이거나 집에 재봉틀이 있으면 그(그녀)는 "신생 부르주아계급"이 되었다. "四不淸"으로 분류된 간부가 "四淸" 공작대원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면 그것은 "자기편으로 타락시키는" 행위로써 노동개조형에 처해질 것이었다.[11]

이와 같이, 1965년 1월 "大四淸"으로 전환된 이후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된 '社敎'운동은 무엇이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채 당국과 공작대원의 자

11) 謝承年, 앞의 논문, p.10.

의적 판단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또 "당내 자본주의 길을 가는 실권파를 타도한다"고 하는 문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주어진 自留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과 부당한 조치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모순이 어떻게 새롭게 조성·심화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1967년 여름 도현의 한 大隊에서 道縣一中에 재학 중인 楊悅坤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는 도현의 양대 대중조직인 '紅聯'과 '革聯' 간 파벌대립이 무력 항쟁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을 때였다. 楊悅坤은 여름방학을 맞아 집(四馬橋區 大坪峻公社 沙窩大隊)으로 가던 길에 보초를 서고 있던 民兵에게 검문을 당했고, 얼마 뒤 다른 "四類分子"들과 함께 살해당했다. 이 사건에는 楊悅能의 획책이 있었는데, 그는 "四淸"운동 때 "四不淸" 간부로 면직된 전직 서기였다. 그는 楊悅坤의 아버지가 "四淸"운동 기간에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임되었다고 생각했고, 이 일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楊悅能은 평소 관계가 좋은 대대 간부와 공모하여 楊悅坤이 '혁연'의 정탐원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처형했다.[12]

이런 보복성 처형 사례는 다른 농촌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문혁 시기 江西省 波陽縣의 高家村에서는 생산대대 서기 高常銀에 대한 비판투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주도한 조반파에는 徐從貴와 高仁開가 있었다. 徐從貴는 '社教'운동 때 부패문제가 적발되어 高常銀에 의해 벌금과 면직 처분을 받은 간부였다. 高仁開는 高常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농기구를 만

12) 譚合成, 앞의 책, p. 35.

들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파는 죽세공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그때 그의 부인과 高常銀이 내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혁이 시작되고 '조반'이 진행되자, 徐從貴와 高仁開는 高常銀을 '타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다.[13]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혁 시기 도현의 파벌투쟁에는 문혁 이전 정치운동에서 조성된 갈등과 대립이 중요한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또한 종족 간 권력 관계 등 농촌 사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누적되어 있던 갈등과 적대감도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모순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갈등과 적대감은 왜 문혁 시기에 파벌 간 결사항전의 무장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현의 문혁 전개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산계급 반동노선" 비판과 조반운동의 흥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혁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社教'운동과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중앙과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14] 도현에는 외지에서 師生 홍위병 조직들이 '경험교류(大串聯)'를 위해 속속 도현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현지 師生들과 함께 호남성 지도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뿌리며 '4舊 타파' 등의 홍위병 운동을 전개했다.[15]

---

13) 高默波, 앞의 책, pp. 223-224.

14)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關於縣以下文化大革命的規定及附件」(1966.9.14.). 본 규정에서 중앙은 베이징과 외지의 학생·홍위병이 성·지위의 지시 없이 縣 이하 각급 기관이나 社·隊에 가서 경험교류(串聯)하는 것과 縣 이하 각급 간부와 공사의 사원들이 외부로 나가 경험교류(串聯)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15) 『道縣誌』, p. 154.

이런 가운데 도현 黨委는 당 네트워크를 동원한 조반 세력을 조직하며 현지 및 외지 홍위병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농촌에서 당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는 "빈농과 하층 중농"이었다. 이전에 당이 지도하는 정치운동에서도 그들은 "貧協"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 정책을 지지했다. 9월과 10월에 걸쳐 縣 黨委는 縣 전체 "빈농·하층 중농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現 정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여기에서는 "문혁 16조"나 毛澤東 저작을 학습한다는 명목 하에 "정치 사기꾼", "우파"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사실상 용인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정치운동에서 상용되어 온 절차로, '黑五類 및 그 자녀들'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혈통론에 근거한 계급투쟁은 現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문혁에 대한 그들의 혁명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지 학생 홍위병 조직이나 외부 홍위병 세력의 '침투'에 맞서 그 지도력을 유지하는 데도 유효한 조치였다. 현 당위는 현지 학생과 외지에서 온 홍위병 세력에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당-정부 기관 자체 조반그룹을 조직하기도 했다.[16] 『道縣誌』에는 당위에서 조직한 조반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다만, 도현과 이웃해 있는 廣西省의 일부 縣에서는 일명 "赤衛隊"라고 하는 당국자들의 지지를 받는 대중조직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학생 홍위병과 다른 외부 조반그룹으로부터 縣城(현 정부 소재지)과 거기에 보관중인 기밀자료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17] 도현 당국에 의해 성립된 홍위병 조직이나 廣西省 일부 縣의 "적위대" 모두 문혁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縣 당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16) 『道縣誌』, p. 154.

17) Andrew G. Walder, "Rebellion of the Cadres: The 1967 Implosion of the chinese Party-State", *The China Journal,* vol. 75, 2015, pp. 109-110.

그러나 이와 같은 도현 당국의 문혁 통제는 곧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966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공작회의에서 陳伯達은 당·정 조직의 공작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문혁을 "자산계급 반동노선"이라고 하며 비판했다.[18] 이런 중앙의 문혁 정책의 전환은 문혁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각 지방 당국의 권위를 크게 떨어뜨렸다. 11월 8일 湖南省委는 「關於堅決迅速地做好平反工作的通知」를 하달하고, "자산계급 반동노선을 집행한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했다. 도현의 상급 기관인 零陵地委에서는 11월 23일 소위 "명예회복 공작회의"를 열고 문혁 초기 일부 간부와 대중을 "右派", "反革命分子"로 박해한 '착오'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사과, 관련 자료의 폐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을 지시했다.[19] 도현에서도 "자산계급 반동노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고, "道縣 縣委를 개조하자", "縣委를 포격하자"는 표어와 대자보가 등장했다.[20]

'자산계급 반동노선 비판'과 같은 중앙의 정치 기류 변화는 '社教'운동에서 문혁으로의 과도기, 또는 문혁 초기 現 정권에 의해 각종 처분과 박해를 받은 간부와 교사, 대중에게 그들의 처벌을 무효화하고 명예회복과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이것은 문혁 초기 홍위병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학생 조반파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했다.

요컨대, 문혁 시기 농촌의 파벌 대립은 중국 농촌 사회의 특성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래 여러 차례 진행된 각종 정치운동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조성된 갈등과 대립, 원한과 같은 농촌 사회 내부에 누적된 기존의 적대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

---

18) 陳伯達, 「無産階級文化大革命中的兩條路線」(1966.10.16.) CCRD 수록

19) 「文化大革命在全區發動」, 『永州史誌網』, http://www.hnyzszw.com/msg.php?id=1794, 2016. 10.25 접속.

20) 『道縣誌』, p. 154.

고 그것은 문혁 이후 전개된 국가의 급격한 정책 전환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문혁의 아래로부터의 反관료주의는 자유로운 조직화가 장려되는 가운데 권력자에 대한 '조반'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3. 현 당위원회(縣 黨委員會)에 대한 '조반'에서 양대 파벌 경쟁으로

1) 도현의 '1월 奪權'과 縣 人民武裝部의 '支左'

문혁 운동을 통제하고 있던 도현 당국은 "자산계급 반동노선 비판"으로 조반파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당국에 의해 비판과 박해를 받은 간부, 교사, 군중들은 명예회복과 복권, 관련 기록 폐기 등을 요구하며 "자산계급 반동노선"을 실행한 黨委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다양했다. 주지하듯이, 문혁에 참여한 대중조직은 그것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크게 보수파와 급진파로 나눌 수 있다. 보수파는 현 상태에 대한 비판에 있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당국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폭력적 항의로부터 현 정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급진파는 현 정권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새로운 권력기구를 수립하는 문혁의 혁명 이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현 권력기구를 과감하게 공격하는 세력이다.[21] 비록 대중조직 가운데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현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서로 결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공통의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문혁은

21) Andrew G. Walder, *Fractured Rebellion: The Beijing Red Guard Mov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p. 5.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67년 1월 4일 上海 文匯報社의 사내 조반 조직에 의한 '奪權'을 계기로, 현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투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毛澤東을 비롯한 중앙 지도자들은 '탈권' 과정이나 '탈권' 이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은 듯하다. '탈권' 이후 毛澤東은 '탈권'에 참여한 조반 조직을 쉽게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탈권'에 의한 권력 공백은 '탈권'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로 결속되어 있던 많은 조반파에게 공백 상태에 있는 권력을 향해 경쟁하는 새로운 무대를 제공했다.

도현에서는 1월 31일 대중조직에 의해 '탈권'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현 당-정부 조직이 마비되었고, 도현 현위 제1 서기 石秀華, 서기 熊炳恩, 현위 부서기 겸 縣長 黃義大 등 지도부의 권한도 모두 정지되었다. 현위 제1서기 石秀華는 河北省 출신의 남하한 외지 간부로, 성격이나 업무 태도가 포악하고 거칠어 도현의 "南霸天(海南 지역의 유명한 악덕지주)"으로 불렸다고 한다.[22] 당시 보수파로 불리며 도현의 기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紅聯'이라고 하는 대중조직에게 붙잡혀 농촌의 모처에서 빈농과 하층 중농의 감독 하 노동개조 교육을 받고 있었다. 도현 東門鄉 출신인 현위 서기 熊炳恩은 문혁 초기 "자산계급 반동노선"을 실행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23] '탈권' 과정에서 '홍련' 조직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혁명 당-정부 간부"대표로 '부활', '탈권' 이후 임시 권력조직인 도현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에서 핵심 지도자가 되었다.[24] 역시 도현 출신인 현위 부서기 겸 縣長인 黃義大는 직책이 정지된 후, '홍련'조직과

22) 譚合成, 앞의 책, pp. 63-64.

23) 譚合成, 앞의 책, p. 64.

24) 周康偉, 「道縣大屠殺」, 『鐵血社區』 http://bbs.tiexue.net. 2017년 1월 4일 접속.

대립관계에 있던 도현의 또 다른 대중조직인 '革聯' 에게 붙잡혀 道縣二中('혁연' 본부)에 수감되어 있었다. 매일 비판투쟁을 받으며, "자산계급 반동노선" 집행에 대한 반성과 毛澤東選集 등을 읽으며 '사상개조'를 하고 있었다.[25]

한편, '탈권' 이후 중앙의 "三支兩軍"(支左·支工·支農, 軍管·軍訓) 방침[26]에 따라 도현에서는 縣 人民武裝部가 그 권력을 임시로 양도받게 되었다. 이들은 군 대표, 당-정부 조직 간부 대표, 대중조직 대표의 '3결합'으로 이루어진 임시 권력 조직인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를 성립하고, '탈권'으로 혼란스러워진 국면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임시 권력 기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정치권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중앙의 '軍 支左' 방침에 따른 군대의 문혁 개입은 군이 '혁명 대중조직'으로 어느 조직을 지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대두시켰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대중조직의 '혁명성'이 그 지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군은 어느 대중조직이 더 '혁명적 좌파'인가를 판별해야 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각 대중조직은 기존의 지도 간부들을 "자본주의 길을 가는 당권파"로 색출하고 탄압하면서 각각 그 '혁명성'의 '정확함'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는[27] 가운데 국면은 혼란 수습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조성·심화시켰다.

'1월 탈권' 이후 도현의 권력 핵심에는 縣 人民武裝部가 있었다. 그 주요 임무는 예비역 관리, 징병, 민병 업무를 지휘하는 것이었

---

25) 譚合成, 앞의 책, p. 64, p. 572.

26) 「中共中央 · 國務院 · 中央軍委 · 中央文革關於人民解放軍堅決支持革命左派群衆的決定」(1967.1.23.)
CCRD 수록. 이 결정에서 중앙은 군대가 적극적으로 "혁명적 좌파 대중의 탈권 투쟁을 지지하고", "무산계급 혁명 좌파에 반대하는 반혁명분자, 반혁명 조직을 단호하게 진압할" 것을 요구했다.

27) 『道縣誌』, p. 157.

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 군대의 이중 구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개 주력부대와 지방부대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주로 국가 방위를 주된 임무로 하는 정예부대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총참모부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후자는 국내 치안 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군으로, 省 軍區 하에는 각 地區와 縣마다 軍 分區와 인민무장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28]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부대가 군 사령부와 지방 당-정부 기구의 이중의 지휘 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인민무장부는 軍 分區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縣 黨委員會와 人民委員會의 군사부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 당-정부 조직의 고위 관료가 지방부대의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29] 예를 들어, 省 黨委 고위 간부가 省 軍區의 제1 정치위원을 맡거나, 현 당위원회 書記가 현 인민무장부의 정치위원을 겸임하는 것이다. 도현 인민무장부 부장 崔保樹, 정치위원 劉世斌은 모두 도현 인민위원회의 상무위원이었다.[30] 이와 같이, 중국 지방부대의 구조적 특성은 지방부대와 지방 당-정부 조직 간에 공생 관계를 만들었다. 때문에 '탈권' 이후 "3결합"의 임시 권력기구를 수립할 때, 권력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도현 인민무장부와 관계가 좋은 대중조직이 그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또 지방 당·정 기관과의 공생 관계라고 하는 인민무장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온건한 대중조직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대중조직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

28) 谷川眞一, 앞의 책, p. 104.

29) Harvey Nelsen, "Military Forc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a Quarterly,* No 51, 1972, pp. 448-449.

30) 『道縣誌』, p. 208; 譚合成, 앞의 책, pp. 61-62.

요컨대, 군대의 문혁 개입이라고 하는 중앙의 '군 지좌' 방침은 각 대중조직이 '1월 탈권'으로 공백 상태에 있는 현의 권력을 둘러싸고 다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국면을 만들었다. 게다가, 지방 부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애매모호한 파벌의 '혁명성'을 논하기보다는 지방 부대와 공생관계에 있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파벌이 권력 획득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2) 도현의 양대 파벌- '紅聯'과 '革聯'의 경쟁

"자본주의 길을 가는 당권파 타도"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한 후, 그것으로 결속되어 있던 도현의 각 대중조직은 공백 상태에 있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벌 경쟁은 문혁의 전개 과정에 따라 부침을 경험하며 심화되어 갔다. '1월 탈권' 이후 경쟁하던 도현의 대중조직은 마침내 양대 파벌, 즉 "毛澤東思想紅戰士聯合司令部"('紅聯'으로 약칭)와 "無産階級革命派鬪批改聯合指揮部"('革聯'으로 약칭)"로 재편되었다. 여기에서는 도현 양대 파벌의 특성 및 도현의 전면 내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두 파 간 경쟁 상황을 주로 살펴본다.

'홍련'은 도현의 新·舊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으로, 주요 지도자는 鄭有志, 賀霞, 張明止, 熊藝衡 등 당-정부 기관의 간부와 현 관할 각 區·社의 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었다.[31] 鄭有志는 淸塘區 무장부장으로, 이후 '혁연'과의 무장 투쟁을 지휘하는 '홍련 營江前線指揮部'의 총지휘부장을 맡았다. 賀霞는 현위 농촌공작부 소속 간부 출신으로, '社敎'운동 때 '四淸' 공작대원으로 차출·파견되기도 했다. 문혁 초기 縣 黨委가 성립한 조반조직 '紅戰士' 5병단에서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도현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에

31) 『道縣誌』, p. 157.

서 "혁명적 대중조직"의 대표로 제1 부조장을 맡았다.[32] 張明止는 현 생산지휘부 物資局의 간부로, '홍련'에서는 後勤部長을 맡았다. 熊禮衡은 午田公社 書記였다. '홍련' 지도부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련'은 기존 정권과 질서 유지를 더 중시하는 보수파 조직이었다. 현 인민무장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967년 8월 '혁연'의 현 무장부 총기 유출사건 이후 수립된 홍련 '營江前線指揮部'[33]의 주요 지도자 대부분이 각 區·公社의 무장부장들이었다.[34] '1월 탈권'으로 직무가 정지된 도현 당위 서기 熊炳恩이 현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에서 조장을 맡게 된 것 역시 '홍련' 조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35] 그래서 '1월 탈권' 후 '홍련'은 현 인민무장부로부터 '혁명 좌파'로 지지를 받는, 자칭 '1월 탈권의 승리자'였다.[36]

도현의 또 다른 대중조직인 '혁연'은 주로 청년 학생, 교사, 시민, 수공업자, 하층 지식인과 소수의 간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출신배경도 다양했다. 그 주요 지도자는 劉香喜(도현 糧食局 工會 주석), 朱永豊(혁연 지도소조 조장), 胡賢忠, 朱峰章(지도소조 부조장), 黃承利(홍위병 지도자) 등이었다.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문혁 이전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많아 기존 정권과 불공정한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四淸"운동과 문혁 초기 도현 당국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37] '홍련'이 도현 관할 농촌 지

32) 譚合成, 앞의 책, p. 377.

33) 8월 인민무장부 총기유출 사건 이전에 '홍련'은 縣委 건물에 본부를 두었으나, 사건 이후 교외에 위치한, 이전 도현 국영농장이었던 營江公社로 그 본부를 옮겼다.『道縣誌』, p.157.

34) 譚合成, 앞의 책, p. 377.

35) 譚合成, 앞의 책, pp. 61-62;「文革·道縣大屠殺」,『人民網』 http://bbs1.people.com.cn/postDetail.do?id=112886355. 2017.1.4. 접속.

36) 譚合成, 앞의 책, p. 61.

역을 세력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혁연'은 縣 정부 소재지에서 비교적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道縣二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38] 零陵地區 일부 조반조직인 '湘江風雷'[39]나 '抗暴' 등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쟁 관계에 있던 '홍련'을 "紅老保"라 비난하며 자신들의 '혁명성'을 줄곧 강조했지만, 도현 인민무장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탈권' 이후 줄곧 열세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중앙의 '2·4지시'로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1967년 2월 4일 중앙의 문혁 소조는 湖南省 軍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호남성 최대 조반파 조직인 '湘江風雷'와 '紅旗軍'[40]의 지도자들을 체포·수감하고 조직을 해체시키는 명령을 내렸다.[41] 호남성에서 '상강풍뢰'가 '반동조직'으로 탄압을 받게 되자, 영릉 지위와 도현 인민무장부도 '상강풍뢰'의 지부 조직이나 관련이 있는 '혁연'을 강력하게 탄압했다.[42]

---

37) 譚合成, 앞의 책, p. 352.

38) 譚合成, 앞의 책, p. 61.

39) '湘江風雷'는 1966년 10월 북경에서 수립된 조직으로, 조직의 전체 명칭은 '毛澤東主義紅衛兵湘江風雷挺進縱隊'이다. 문혁 초기 '우파', '반혁명분자', '黑鬼'로 분류된 간부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전성기에는 그 인원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규모가 컸고, 성 내 각지에 본부와 지부를 가지고 있어 총사령부-戰團-支隊-隊로 급을 나눠 관리했다. 성도인 長沙와 호남 문혁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조직이었다. 2·4 지시에 따라 '상강풍뢰'는 '반동조직'으로 규정되어 1만 여 명에 달하는 지도자가 체포·구금되고 조직은 해체되었다. 이후 4월까지 '상강풍뢰'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강력한 숙청이 진행되었다. 閻長貴· 王廣宇, 「"2·4"批示前後」, 『炎黃春秋』 4, 2016, pp. 61-62.

40) 紅旗軍은 명예퇴직, 제대, 전역, 퇴직 군인으로 구성된 대중조직이었다. 閻長貴· 王廣宇, 앞의 논문, p. 62.

41) 「全軍文革辦傳達中央文革小組關於湖南"湘江風雷", "紅旗軍"的批示」(1967. 2.4.), 손승회, 「湖南文革의 전개와 省無聯」, 『民族文化論叢』 49, 2011, pp. 179-180.

42) 「文革·道縣大屠殺」, 『人民網』 http://bbs1.people.com.cn/postDetail.do?id

한편, 약세에 처해 있던 '혁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2·4지시'로 '상강풍뢰'는 그 지도자가 구금되고 조직이 해체되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은 또한 군에 대한 조반 조직의 반발을 가져왔다. 그래서 호남성을 비롯한 곳곳에서 군의 탄압을 비판하고 '상강풍뢰'의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으며, '工聯'과 같은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조반파가 성립되어 조직적인 대응을 했고 심지어 대규모 무장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변화를 이끌어냈다. 1967년 7월 중순 毛澤東이 '2·4지시'에 대해 비판을 한 후, 周恩來를 비롯한 당 중앙은 호남 각 대중조직 대표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8월 2일 제4차 접견에서 周恩來는 '상강풍뢰' 역시 조반파 조직이며 좌파로, 그에 대한 탄압의 근거가 된 중앙의 '2·4'지시는 잘못되었고 그 조직과 명예를 회복해야 함을 인정했다.[43] 이것은 이후 8월 10일 중앙의 「關於湖南問題的若干決定」으로 하달되었다.[44]

중앙의 '2·4'지시의 착오 인정과 '상강풍뢰'에 대한 명예회복은 '혁연'에게는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2·4지시'를 실행한 現 지도부를 압박하며 현 정부 소재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나갔다.[45] 반면, 이와 같은 중앙의 정치 풍향의 변화는 '2·4'지시의 '혜택'을 받은 반대파를 충분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8·10 결정'으로 중앙에 의해 모두 '혁명 대중조직'으로 판명 받은 도현의 양대 대중조직은 자신들의 혁명성을 내세우며 다시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은 무력을 동원한 결사항전으로까지 심화되었다.

=112886355. 2017.1.4. 접속.

43)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손승회, 앞의 논문, pp. 181-185 참조.

44) 「中共中央關於湖南問題的若干決定」(1967.8.10.), CCRD 수록.

45) 「文革 · 道縣大屠殺」, 『人民網』 http://bbs1.people.com.cn/postDetail.do?id=112886355. 2017.1.4. 접속.

4. 도현(道縣)의 '전면 내전'

'1월 탈권' 이후 도현의 새로운 권력을 둘러싼 '홍련'과 '혁연' 두 대중조직의 파벌 경쟁은 1967년 여름과 가을 무력을 동원한 결사항전의 '전면 내전'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 전체 인구의 1.17%가 살해당하는 '도현대학살'사건이 발생했다. 1967년 8월부터 10월까지 66일 동안 도현의 거의 모든 농촌에서 주민 4,519명이 살해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피살되거나 억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들이었다.[46] 이 사건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도현을 제외한 零陵 全區 10여 현에서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47] 그렇다면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도현대학살'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것은 도현의 문혁 파벌 경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좌파 무장'정책과 '혁연'의 인민무장부 총기 유출

'1월 탈권'과 '2·4지시'로 열세에 처했던 도현의 '혁연'은 1967년 7-8월 중앙의 '2·4지시' 비판으로 '상강풍뢰'가 복권되자, 그들을 탄압했던 現 도현 지도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받은 縣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는 8월 3-5일 각 區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5일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 부조장이자 현위 서기인 熊炳恩은 최

46) 譚合成, 앞의 책, p. 47.

47) 통계에 따르면, 문혁 기간 영릉지구의 '비정상 사망'자는 9,093명, 부상자는 2,146명에 달했다. 사상자는 대부분 '四類分子'와 그 자제들이 많았고, 빈농과 하층 중농 출신도 1,049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역사문제나 보복살인으로 해를 입은 사람도 많았고, 미성년자도 826명이나 있었다. 譚合成, 앞의 책, pp. 47-48.

근 도현 농촌의 계급 동태를 전하고 "四類分子"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48]

이런 가운데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8월 8일, 도현 인민무장부의 무기고가 한 무리의 대중조직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당시 '홍련' 지도자 중 한 명인 張明止에 따르면, 8월 8일 밤 '혁연'이 榮陵地區 조반조직 '抗暴'과 함께 무장부의 무기고를 습격, 보관하고 있던 총기와 탄약을 모두 '강탈'해 갔다. 이후 '혁연'은 또 縣城에서 각 區·社 무장부장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를 열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구·사 무장부장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당시 인민무장부 정치위원이었던 劉世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다.[49]

그러나 '혁연'측의 설명은 달랐다. 劉香喜(제대 군인 출신의 '혁연' 일반회원, '홍련'과의 무장 투쟁이 악화되자 이후 '혁연' 지도부를 지휘하게 됨[50])에 따르면, 8월 8일 저녁 7시 현 인민무장부 부부장인 趙德才가 참모 두 명을 데리고 급하게 '혁연' 본부에 와서 지도부를 찾았다. 이유인즉슨, 당시 冷水灘造紙廠 생산과장, 영릉 조반조직 '抗暴'의 책임자들이 영릉 군 분구 사령부의 소개서를 들고 와서, 무장부 무기고의 총기와 탄약을 '접수'하려고 했다. 현 무장부가 관할 공수부대 방위 임무의 중요성을 들어 무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이, 다급해진 무장부가 영릉 조반조직과 관계가 있는 '혁연'이 이 문제에 나서줄 것을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이후 '혁연' 지도부는 현 인민무장부, 영릉의 '상강풍뢰'와 '항폭' 간의 '담판'에 참여했고, 그 결과 무기고 총기 가운데 소련제 카빈총과 같이 좋은 총기는 '湘派' 冷水灘 '星火支隊'가 가져가고, 영릉 '항폭'은 중기관총 한 정과 약간의 단거리 무기를 가져갔다. '혁연'은

48) 『道縣誌』, p. 157; 譚合成, 앞의 책, pp. 62-63.
49) 譚合成, 앞의 책, p. 65.
50) 譚合成, 앞의 책, p. 66.

짝이 맞지 않거나 고장 난 나머지 총기 150여 정을 '접수'했다고 했다.[51]

인민무장부 무기 유출이라고 하는 동일 사건에 대해 두 조직은 서로 다르게 기억·진술하고 있다. 사실 도현 인민무장부 무기 유출은 도현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사건은 아니었다. 陝西省, 廣西省 등에서도 무기고 습격과 무기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52] 각지에서 발생한 무장부 무기고 습격과 무기 유출은 농촌의 문혁 파벌 대립이 '전면 내전'의 대혼란으로 확대·발전하고 대살상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장부의 무기 유출은 단순히 지역 내 파벌 대립의 악화로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중앙의 정책이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1967년 8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좌파 대중에게 무기를 지급하라(發槍給左派群衆)"고 하는 "좌파 무장(武裝左派)"정책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武漢 7·20"사건[53]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1967년 7월 18일 武漢에 머물던 毛澤東은 '보수파'조직('百萬雄士')이 우위에 있는 것을 보고, '급진파'세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무장을 제안했다.[54] 그리고 이것은 8월 4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식

51) 譚合成, 앞의 책, p. 66.

52) 谷川眞一, 앞의 책, pp. 158-161; 中共全州縣委整黨領導小組編, 「廣西全州"文革"大事記」(1986.11.30.), CCRD 수록.

53) '무한7·20'사건은 1967년 7월 20일 무한에서 발생한 정치사건으로, 軍과 관련이 있는 보수파 조직인 '無産階級革命派百萬雄師聯絡站'('百萬雄師'로 약칭)이 무장 시위를 벌여 중앙 문혁 지도자 王力, 謝富致를 비판하고 억류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손승회, 「文化大革命과 武漢極左派」, 『中國硏究』 73, 2015 참조.

54) 丁凱文, 『解放軍與文化大革命』, 明鏡出版社, 2013, pp. 147-149; Michael Schoenhals, ""Why Don't We Arm the Left?" Mao's Culpability for the Cultural Revolution's "Great Chaos" of 1967", *The China Quarterly,* no. 182, 2005.

정책이 되었다. 이후 실제로 각 지역 군대에서 '좌파'조직에 무기를 지급했는가에 대해서 현재 공식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영릉 지구 일부 급진파 조직이 영릉 군 분구 사령부의 소개서를 들고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파의 무장'이라고 하는 정책은 중앙이 대중조직 간 힘의 균형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각지의 좌파 대중조직에게 파벌의 무장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했다.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외나 농촌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했고, 중앙의 '좌파 무장'정책을 내세우며 영릉 군 분구 사령부를 압박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영릉 군 분구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도현 인민무장부에게 이들 좌파 조직에게 무기를 지급하라는 서신을 발급했을 것이다. '좌파 조직'은 이 서신을 제시하며 도현 인민무장부에 무기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민무장부가 거부하자 도현 내 급진파 조직과 협력하여 무장부를 압박하고 무기 지급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파벌조직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마련한 '좌파 무장'정책은 지방에서는 오히려 파벌 간 무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문혁 연구에서 군대의 개입은 문혁의 무정부상태와 같은 대혼란 국면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것은 문혁의 전체 맥락에서는 긍정할 수 있는 평가이다. 그러나 '군 지좌'나 '좌파 무장'과 같은 군대의 문혁 개입은 실제로 문혁 시기 농촌의 파벌경쟁을 오히려 더욱 격화시키고 파벌의 무장 강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폭력을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武鬪'의 고조와 '도현대학살'

도현 인민무장부의 무기 유출 사건 이후 도현의 대중조직 간 무

장 충돌의 위험은 나날이 고조되어 갔다. 외부 조반조직과 함께 현 인민무장부의 무기를 강탈해간 '혁연'은 8월 9일 인민무장부 지하와 천장에 보관 중이던 총기와 탄약, 그리고 공안국의 무기도 모두 강탈해갔다.[55]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縣城을 제압하며 '홍련'과의 무장 투쟁을 준비했다.

한편, 무장부 총기 유출에 따른 '혁연'의 무장 강화에 크게 당황한 '홍련'은 8월 9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들은 우선 본부를 縣城에서 교외의 營江公社로 옮기고,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56] 그리고 "營江前線指揮部"라는 새로운 지도부를 수립했다. 이 지도부는 주로 '홍련'의 지도자와 각 區 무장부장들로 구성되었는데, 淸塘區 무장부장인 鄭有志가 총지휘를, '홍련'의 수장인 賀霞과 張明耻가 각각 부정치위원과 후방부장을 맡았다.[57] 인민무장부의 무기를 '혁연'이 먼저 선점하자 '홍련'은 각 區 民兵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과 무기를 총동원하여 무장 투쟁에 대비했다.

이렇게 도현 양대 대중조직의 무장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련'을 뒤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세력이 있었다. 縣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는 '혁연'의 무장부 무기 유출사건이 있던 바로 다음 날 각 區·公社 "抓革命促生産領導小組" 조장 전화회의를 주관했다. 여기에서 현위 서기 熊炳恩은 무장부와 공안국의 무기 유출 사건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계급 적"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며 각지에서 민병과 농민을 동원하여 "계급 적"에 대한 경계를 특별히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58] 이와 같은 현위 서기의 지시는 무장 투쟁이나 민간인 학살을 직접 지시한 것은

55) 『道縣誌』, p. 154.
56) 譚合成, 앞의 책, p. 67.
57) 譚合成, 앞의 책, p. 119.
58) 譚合成, 앞의 책, p. 68.

아니었지만, "혁명적인 대중조직"의 대표 자리를 서로 다투고 있는 '혁연'의 무장과 도현 각지의 긴장 상황을 부각시킴으로써 '홍련'측을 더욱 자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8월 13일 '홍련'과 '혁연'의 최초 무장 충돌이 발생했다. 13일 '홍련'은 현성 내 양곡 판매점에서 양식을 운반하다 '혁연' 세력에게 저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무장 충돌이 발생했다. '홍련'측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각 1명이 총에 맞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59] 분노한 '홍련'측은 "'革匪'와 끝까지 혈전을 벌일 것을 맹세한다!", "피 값은 반드시 피로 갚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체를 들고 현성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60] 이 소식을 들은 각 구·공사 간부들은 구·공사 내 민병과 농민들을 동원하여 현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61] 한편, '8·13' 무장투쟁이 있은 그날 밤 일부 區·公社에서는 '홍련'의 협조 하에 "四類分子" 집단 훈계회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四類分子"로 알려진 주민 한 명이 살해되었다.[62] '도현대학살'의 시작이었다.

'8·13 武鬪' 이후 '홍련'은 '혁연'에 대한 공격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다. '혁연'이 농촌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각 區 민병을 동원하여 주요 통로마다 초소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63] 道縣二中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하고 퇴역군인 등 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혁연' 본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또 '혁연' 본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농촌 주민들에게 현성으로의 公糧 납부나 채소 판매 등을 금지했다.[64]

---

59) 『道縣誌』, p. 157.
60) 譚合成, 앞의 책, p. 74.
61) 譚合成, 앞의 책, pp. 572-574.
62) 『道縣誌』, p. 157; 譚合成, 앞의 책, pp. 72-73.
63) 譚合成, 앞의 책, pp. 258-259.
64) 譚合成, 앞의 책, p. 259.

병력과 조직 규모 면에서 '혁연'은 '홍련'에 비해 약세였다. 또 도현 전체 관할 구역을 '홍련'세력이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도움 없이 '혁연'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당시 도현의 "走資派"로 지목되어 道縣二中에 수감 중이던 현위 부서기 겸 현장 黃義大는 도현의 이와 같은 파벌 대립 상황 및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현의 현재 상황을 상부 기관에 알리고, 더 큰 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래서 '혁연' 지도부의 협조 하에 '홍련'의 감시망을 뚫고 省都인 長沙에 도착한 黃義大는 친분이 있던 당시 湖南省革命委員會籌備小組(이후 '省革籌'로 약칭) 부주임 華國鋒, 章伯森 등에게 도현 상황을 전하려고 했다.[65]

이러한 때 '홍련'이 장악하고 있던 도현 관할 내 거의 모든 농촌에서 일반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譚合成은 그의 저서에서 이때 도현의 각 區에서 단행된 민간인 살해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표 1)은 문혁 기간 중 도현에서 피살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 정황을 정리한 것이다. 사망자는 대부분 농민이었고 교육계 종사자도 다수 포함되었다. 그 외 일부 '四淸'운동으로 면직된 간부, '혁연' 가족, 간부 출신 조반파 성원, 좀도둑 등이 있었다. 출신성분으로는 "四類分子" 및 그 자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혁명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빈농과 하층 중농도 적지 않았다. 대규모 살인사건이 나날이 심화되자, 특히 "四類分子"로 분류된 가구 구성원들 가운데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외지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다. "빈농과 하층 중농" 출신들 역시 인심이 횡행하여 "四類分子"에게 '계급적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기도 했다.[66]

---

65) 譚合成, 앞의 책, pp. 576-578.
66) 譚合成, 앞의 책, pp. 364-365.

〈표 1〉 '도현대학살'의 사망자 기본 현황[67]

區	출신성분				직업			
	四類分子	四類分子 자제	빈·하중농	기타	간부	교육	농민	노동자
梅花	89	49	22		2	8	145	1
仙子脚	71	49	28	4	2	8	140	
淸塘	202	107	40	3	2	10	337	1
祥霖鋪	346	520	31	19	5	25	879	5
四馬橋	213	287	32	1	1	11	518	
淸溪	239	304	70	4	1	21	586	6
蚣壩	531	575	75	15	4	29	1156	5
壽雁	281	201	46	7	3	6	526	
道江鎭	13	12		2			27	
縣직할	12	49	6	7	9	7	31	19
합계	1994	2153	350	62	29	125	4345	37

도현 각 區·公社의 주요 간부들은 '홍련'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자본주의 길을 가는 당권파를 타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류분자와 그 자제들"에 대한 살해를 준비했다. 그들은 모택동 사상을 충실히 따르고 '적'으로부터 중국 사회주의 혁명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계급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살해 대상으로 삼았다. 살해 대상에 대한 정보는 '社教'운동을 비롯한 이전 여러 차례의 정치운동과 지금까지 진행된 문혁 운동을 통해서 이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지의 "계급 적"을 라이벌 조직과 연계시키기 시작했다. 피살자들은 '혁연'이나 '상강풍뢰' 그룹과 연계되어 있었고, 빈농과 하층 중농, 공산당원과 공청단원 및 '혁명 간부'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反革命'적 활동을 줄곧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살자들은 "反共救國軍"[68]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67) 본 표는 譚合成의 『血的神話』에서 제시한 현황표를 재편집한 것으로 譚合成, 앞의 책, p. 384 참조.

68) 譚合成, 앞의 책, p. 105,

조직적으로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반동'활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피살자들의 이와 같은 '반동 행위'들은 모두 거짓으로 날조된 것이다. 피살자들은 검찰, 법원, 경찰조직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소위 "빈농과 하층 중농 최고법원"을 통해 현장 즉결심판으로 처결되었다. 당시 도현에서 이렇게 처결되거나 압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이 4,500여 명에 달했다. 梅花區의 경우 당시 區 전체 인구의 5.4%가 피살되었다고 한다.[69] 도현 농촌의 민간인 학살은 호남성 혁명위원회 주비위원회와 해방군의 직접적인 개입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3) 人民解放軍 6950부대의 개입

도현 양대 파벌의 대규모 무장 투쟁과 민간인 학살은 당·정·군 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져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黃義大는 '홍련'과 '혁연'의 '8·13'무장투쟁을 직접 목격한 이후, 도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長沙로 갔다. 8월 19일 長沙에 도착한 黃은 바로 '省革籌' 사무실을 찾아 도현 상황을 전했지만, 당시 長沙 역시 대중조직 간 파벌 투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도현 인민무장부가 도현 상황을 은폐하여 보고함으로써[70] 도현의 무장투쟁과 민간인 학살을 저지하는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사이 도현 농촌의 피살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다급해진 黃義大는 8월 26일 '省革籌'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省革籌'는 인민해방군을 도현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지시 사항('6·6 통지'[71]과 '7·13 통

69) 譚合成, 앞의 책, p. 384,
70) 譚合成, 앞의 책, p. 580.
71) 당시 대중조직 간 파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던 "함부로 때리고 부수고 강탈하고 체포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앙이

지'[72])을 전단지로 만들어 도현 관할 전 지역에 뿌리기도 했다.[73]

8월 29일, 2개 중대와 수 십 명의 정치공작 간부로 구성된 6950 '支左'부대가 도현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현 주둔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벌어진 '홍련'과 '혁연'의 제2차 대규모 무장투쟁에서 부대의 부지도원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도현의 파벌 투쟁은 나날이 심각하게 되어 갔다. 사상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육로와 수로 등 모든 교통로가 차단되어 물자 유통에도 문제가 생겼다. 각 구·공사의 많은 농민대중들이 파벌투쟁에 동원되어 농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도현의 영향을 받아 이웃 江華縣, 祁陽縣 등에서도 민간인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74]

9월 5일 인민해방군 6950부대는 인민무장부, '홍련', '혁연'의 각 지도자를 소집하여 "살인 저지"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부대 대표는 '홍련'과 '혁연' 모두 혁명적 대중조직임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무장투쟁의 중지와 화합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 6950부대는 선전차와 선전대를 동원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선전 활동을 펼쳤다.[75]

그러나 두 파벌 간 정전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로 "사류분자 및 온갖 잡신"의 대표, "반혁명 대학살과 혁명적 인민을 탄압한 수괴"로 날선 비난을 쏟아내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에 6950부대는 현 인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4자 책임자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의 '9·5명령'을 결연히 집행하고 도현의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9·5명령'은 1967년 9월

하달한 통령으로, 6월 6일에 발표되어 '6·6通令'이라고 했다.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小組通令」(1967.6.6.) CCRD 수록

72) 「中共中央關於禁止挑動農民進城武鬪的通知」(1967.7.13.) CCR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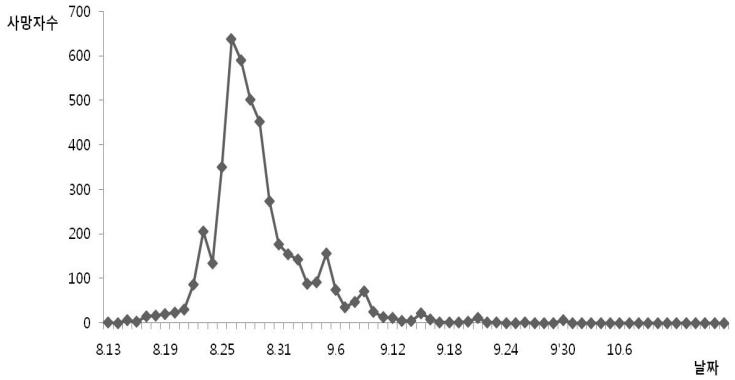
73) 譚合成, 앞의 책, pp. 580-581.

74) 譚合成, 앞의 책, p. 386.

75) 譚合成, 앞의 책, p. 359.

5일 중공중앙이 하달한 것으로, 군대의 무기와 장비, 각종 군용 물자를 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명령이다. 이 명령에서는 또 이후 어느 조직에게도 무기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이미 강탈해간 인민해방군의 무기와 물자는 모두 봉인해서 보관하고 기한을 정해 상납할 것을 지시했다.[76] 9월 9일, 해방군의 지휘 하에 양측 지도자는 정전협의에 서명을 했다. '9·9협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측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모두 즉시 봉인·보관하고 명령에 따라 상납한다. ② 양측 모두 적대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적대적 시위, 집회, 행진을 하지 않는다. ③ 먼저 도발하는 측이 그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진다.[77]

〈그림 1〉 '도현대학살'의 사망자수 추이[78]



도현의 두 대중조직이 어렵게 정전 협의에 도달했지만 양측 모두 성의는 없었다. 함부로 살인하는 풍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

76) 「中共中央 · 國務院 · 中央軍委 · 中央文革小組關於不准搶奪人民解放軍武器, 裝備和各種軍用物資的命令」(1967.9.5.) CCRD 수록.

77) 譚合成, 앞의 책, p. 360.

78) 본 곡선도는 譚合成의 『血的神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임.

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살인이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살인 저지'를 선전하는 해방군에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농민들이 장창, 군도, 방망이, 조총과 같은 흉기로 해방군을 포위·위협하며 이들을 "劉少奇의 부대", "四類分子에 충성하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79] 이런 농민들의 대항은 모두 해당 구·공사 간부들의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9·9협의' 이후 도현 관할 농촌에서의 살인사건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9월 하순 들어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비록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여 수십 명의 인명 손실이 나긴 했지만,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학살 사건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5. 맺음말

6950부대의 주둔 이후 도현의 대중조직 간 무장투쟁과 학살은 중지되었다. 인민해방군의 지휘 하에서 도현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혁명위원회를 수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1968년 3월 1일 도현의 새로운 혁명위원회가 성립되었고, 혁명위원회는 이후 '도현대학살' '진상규명 학습반(揭蓋子學習班)'을 조직, 사건의 피해현황 및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에 의한 도현 문혁의 강제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도현의 일시적 '안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68년 여름 6950부대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도현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 '지좌' 권력은 재편된 도현 인민무장부에 양도되었다. 학

79) 譚合成, 앞의 책, p. 361.

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지도자들은 처벌은커녕 다른 곳으로 수평 이동하거나 심지어 승진하기도 했다. '도현대학살' 진상 조사 때 그 책임 추궁 문제로 안절부절 못했던 각 區·社의 무장부장과 '홍련'지도자들은 진상 조사를 지도하고 있던 혁명위원회 간부와 '혁연'지도자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다시 겨눴다. 문혁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들은 가혹한 비판과 탄압을 받아야 했고, 질병, 장기간의 투옥 등 온갖 정치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상 본고에서는 문혁 시기 호남성 도현의 문혁 전개와 파벌주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문혁 시기 중국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이 격렬한 파벌투쟁이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의 '도현 내전'으로까지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4,500명 이상의 농촌 주민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현의 파벌 대립에는 문혁 이전 도현 사회 내부에 누적되어 있던 갈등과 적대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대규모 '武鬪'로 확대·발전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軍 '支左'정책, '좌파 무장'과 같은 중앙의 정책이었다. 그동안 문혁 연구에서 군대의 개입은 문혁의 무정부상태와 같은 대혼란 국면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것은 문혁의 전체 맥락에서는 긍정할 수 있는 평가이지만, 도현의 사례는 군대의 도현 문혁 개입이 오히려 파벌경쟁을 격화시키고 파벌의 무장 강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폭력의 확대와 민간인 학살의 비극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도현의 문혁 파벌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파벌 간 무력 투쟁이 격화되었을 때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을 들 수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四類分子"와 그 자제들이었다. '도현대학살'은 문혁의 파벌 경쟁이 무장 항쟁으로 격상하는 정치 상황 하에서, 계급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인된' 부류의 사람들을 대량으로 살해함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모택동사상을 충실히 따르고 '적'으로부터 도현

의 사회주의 혁명정신을 보위하는 진정한 '혁명 좌파'임을 표명한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한 폭력 행위였다. 이것은 도현의 문혁 파벌 투쟁의 심각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문혁 시기 국가의 사회관리 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자행된 도현의 민간인 학살의 성격 문제나 중국의 다른 농촌 지역과의 공간적 편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宋永毅 主編, 『中國文化大革命文庫』(CCRD, 第三版),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大學服務中心, 2013.
湖南省道縣縣誌編纂委員會 編, 『道縣誌』, 中國社會出版社, 1994.

2. 논문

안치영, 「문화대혁명과 그 연구 동향 및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3-2, 1997.
손승회, 「湖南文革의 전개와 省無聯」, 『民族文化論叢』 49, 2011.
_____, 「文化大革命과 武漢極左派」, 『中國研究』 73, 2015.
章成, 「湖南道縣農村大屠殺」, 『開放雜誌』 7,8,9,12期, 宋永毅, 『文革大屠殺』, 開放雜誌社, 2002.
謝承年, 「我親歷的 "四清" 運動那些事」, 『文史天地』 6, 2012.
閻長貴· 王廣宇, 「"2·4" 批示前後」, 『炎黃春秋』 4, 2016.
磯部 靖, 「廣東における文化大革命と中央·地方關係」, 『長岐外大論叢』 4, 2002.
R. Baum,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Countryside: Anatomy of a Limited Rebellion", Thomas W. Robinson (ed),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Harvey Nelsen, "Military Forc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a Quarterly*, No 51, 1972.
J. Unger, "Cultural Revolution Conflict in the Villages", *The China Quarterly*,

vol. 153, 1998.
A G. Walder and Y Su,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Countryside: Scope, Timing and Human Impact”, *The China Quarterly*, vol. 173, 2003.
Michael Schoenhals, ““Why Don’t We Arm the Left?” Mao’s Culpability for the Cultural Revolution’s “Great Chaos” of 1967”, *The China Quarterly*, no.182, 2005.
Andrew G. Walder, “Rebellion of the Cadres: The 1967 Implosion of the chinese Party-State”, *The China Journal,* vol. 75, 2015.

3. 단행본

譚合成 著, 『血的神話: 公元1967年湖南道縣文革大屠殺紀實』(第2版), 天行健出版社, 2012.
宋永毅, 『文革大屠殺』, 開放雜誌社, 2002.
高默波, 『高家村: 共和國農村生活素描』, 中文大學出版社, 2013.
丁凱文, 『解放軍與文化大革命』, 明鏡出版社, 2013.
谷川眞一, 『中國文化大革命のダイナミクス』, 御茶の水書房, 2011.
Yang Su, *Collective Killings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Andrew G. Walder, *Fractured Rebellion: The Beijing Red Guard Mov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투고일**: 2017. 3. 5 **심사완료일**: 2017. 4. 12 **게재확정일**: 2017. 4. 12)

이름: 구소영
소속: 경북대학교 사학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전자우편: ppotto740903@hanmail.net

[Abstract]

Factional Strife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aking Hunan Daoxian as a Case

Ku, So-Young

I examine the factionalism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by taking Hunan Daoxian as a case. The occurrence of factional strife in rural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has been rejected in academia. However, the example of Daoxian shows that vehement factional strife occurred in rural areas as in urban areas and civilian massacre made by factions took place as the factionalism was elevated to a desperate armed struggle. It then follows that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 that the Cultural Revolution was urban based should be reconsidered.

The factionalism in Daoxian was mainly caused by tension and hostility which had been accumulated since before the Cultural Revolution began, but a direct cause making them develop and expand to a large-scale armed battle was such polic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policy of the military's 'support the left,' 'armed leftist,' etc. Previous research into the Cultural Revolution argues that army interven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the anarchic state in China and in pacifying the Chinese society. It is justifiable in the whole context of the Cultural Revolution, but the instance of Daoxian shows us that the army intervention, rather, intensified the factionalism and expedited the armament of the factions and thereby caused the tragedy of the proliferation of brutal power and civilian massacre.

Key words: the Cultural Revolution, rural China, Hunan Daoxian, factionalism, massive killing, People's Armed Department